

2022 한국선교현황 보고

2023. 2. 21.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조사 및 발표를 맡은 2022 한국선교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¹

1. 머리말

KRIM과 KWMA가 2020 선교현황조사부터는 단일화하여 발표하기로 협약한 이후, 세 번째 현황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2022년 조사에서도 한국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먼저 명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된 선교사를 조사하였다.

2. 선교현황 개요

2022년 한국 선교사 현황은 169개국²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 22,204명³의 장기 선교사와 482명의 단기 선교사(선교단체 소속) 및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타 국적 국제 선교사 91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선교 현황을 위해 조사된 단체는 228개 단체(선교단체와 교단)⁴이며, 통계조사는 온라인 또는 문서파일 형태를 사용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회신 받았으며, 미회신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보완하였다.

3. 한국선교현황 주요 통계

한국선교현황의 주요 통계는 선교사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 자녀에 대한 내용이다.

3.1 한국선교사 현황

선교사에 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와 선교단체 소속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한국 단체의 파송을 받은 타 국적의 국제 선교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1.1 장기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먼저 한국 장기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⁵를

¹ KRIM 책임연구원: 홍현철, 연구원: 김성태, 김범영, 윤희정, 김민주. **발표된 통계자료와 도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

² 사역 대상국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을 제외한 해외 파송국은 168개국이다.

³ 부부는 2명으로 계산되었으며, 교단 선교부와 전문 선교단체의 이종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22,204명은 이중소속 중복이 포함된 전체 선교사 23,443명에서 이중소속 관련 1,239명(5.29%)을 제외한 수이다. 조사대상은 한국 개신교 선교단체로 제한하였다.

⁴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이전의 2개 단체를 삭제하고, 신규로 3개 단체를 추가하였다.

⁵ 한국의 장기선교사 조사를 위해 제시된 정의는 타문화권(타문화권 선교에 직간접 기여)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 혹은 후원 주체(개교회 파송은 제외)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금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한다. 국내 본부의 장기, 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비량 선

제시하였으며, 그 기준을 적용한 한국 국적의 타문화권을 위한 장기 선교사 수는 22,204명이다. 이중으로 소속된 선교사는 숫자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남녀의 비율: 장기 선교사의 남녀 비율은 남 48.0% 여 52.0%로 구성되어 있다.⁶
- 부부와 독신 비율: 장기 선교사의 부부는 전체 선교사의 90.3%이며, 독신은 9.7%를 차지하였다. 독신 선교사의 남녀 비율은 남 29.5%, 여 70.5%로 집계되었다.
- 연령 분포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를 응답한 선교단체는 82.9%(189개 단체)⁷이다.

연령 분포	29 세 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 이상
비율(%)	0.88	7.10	26.52	38.98	23.13	3.39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에서 50대 이상이 6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선교사는 26.52%를 차지하고 있다.⁸ 반면, 30세 이하의 선교사 수는 7.98%이다.

- 은퇴 선교사

2022년 한 해 동안 은퇴한 선교사에 대해 184개 단체(80.7%)에서 응답하였으며, 은퇴 선교사 비율은 0.91%이며, 이를 전체 선교사 수에 대입하면 2022년 한 해 202명의 장기 선교사가 은퇴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⁹

만약 70세에 은퇴한다고 볼 때, 현재 60대 이상의 선교사는 10년 이내에 모두 은퇴 대상자가 되며, 현재 선교사의 약 26.52%인 5,889명이 10년 이내 은퇴 대상자가 된다. 65세를 은퇴 나이로 본다면 현재 선교사의 약 46.01%(현재 55세 이후를 50대의 절반으로 계산할 경우)인 10,216명이 10년 이내 은퇴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대상자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지만, 매년 실제 은퇴를 하는 숫자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¹⁰

교사는 인정하고,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계산하며, 해외 선교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이 아닌 협력 선교사는 제외한다. 이중으로 정식 소속된 선교사는 포함하되, 이중소속 단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⁶ 가정과 독신 선교사 비율에 응답한 단체에 속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86.2%이다.

⁷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에 응답한 189개 단체에 속한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83.8%이다.

⁸ 선교사 파송 훈련, 은퇴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선교사 나이의 범위를 25세에서 74세로 놓고 해당 연령대에서 각 나이의 선교사 수를 동일한 분포로 계산하여 장기 선교사 평균 연령을 추산해 본다면 2022년 장기 선교사 평균 연령은 53.1세이다. 같은 조건으로 볼 때, 2021년은 52.5세이며, 2020년은 52.1세이다.

⁹ 응답한 184개 단체의 소속 선교사 20,097명은 전체 선교사 수의 85.7%를 차지하고 있고, 응답하여 집계된 은퇴 선교사 수는 182명이었다. 응답한 단체 소속 선교사 수에 대한 은퇴 비율 0.91%에 이중소속 선교사 수를 제외한 선교사 총 수(22,204명)를 적용하면, 2022년 전체 은퇴 선교사는 202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은퇴 선교사 비율은 0.85%(189명)였다.

¹⁰ 은퇴자를 묻는 항목에서 이전 은퇴자까지 누적하여 답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설문지에 2020년부터는 당해 연도에 은퇴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사역을 지속하는 선교사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2022년 은퇴 선교사의 은퇴 후 사역 지속 여부에 관해서는 58.8%가 '지속', 41.2%가 '중단'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은퇴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선교단체에 은퇴 연령 규정 유무에 대해 새롭게 조사하였다. 은퇴 연령 규정에 대한 답변을 한 단체 중에서 규정이 있는 곳은 49.2%인 91개 단체, 규정이 없는 곳은 50.8%인 94개 단체로 나타났다.¹²

은퇴 후 사역을 지속하는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선교단체와 교단은 은퇴 연령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은퇴 규정과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파송 교회들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사역 중단 선교사

2022년 한 해 동안 은퇴를 제외한 사역을 중단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한 선교사의 비율은 1.42%로 집계되었다.¹³ 제출된 사역 중단 요인은 다음과 같다. 사역 중단 요인 중 사역 및 직업 변경(83명)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개인 사유(46명), 선교사의 건강 및 질병(43명), 선교지 환경(38명), 소명 및 자질(8명), 가족 및 재정 문제(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⁴

-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

2022년에 신규로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의 비율은 3.50%이다¹⁵ 신규 파송 선교사의 사역

한 선교사의 수로 한정하여 질문하였고, 집계된 은퇴자 수를 전체 선교사 수에 반영하여 실제 은퇴자 수를 추산하였다. 2020년 170명, 2021년 189명이 그해 발생한 은퇴자 수로 추산되었다.

- ¹¹ 지난 2020년에는 44.1%가 은퇴 후 사역을 지속하였으며, 2021년에는 54.8%가 은퇴 후 사역을 지속하였다.
- ¹² 은퇴 연령 관련 규정에 대한 답변을 한 단체는 185개 단체이며, 이는 전체 단체의 81.5%이다. 은퇴 연령 규정과 관련해서 응답한 단체 중 파송단체로 한정해서 비율을 살펴보면, 파송단체의 57.3%인 59개 단체가 규정이 있으며, 42.7%인 44개 단체가 규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¹³ 사역중단과 탈퇴 선교사는 190개 단체에서 278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응답된 단체의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사역중단 선교사의 비율은 1.42%로 전체 사역중단 선교사는 316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1년말 조사에서 사역 중단 선교사 비율은 1.41%였다.
- ¹⁴ 집계된 사역 중단 선교사 중 사역 중단 세부 요인을 기록한 224명에 관한 중단 요인이며, 사역 및 직업 변경의 세부 요인으로는 사역 전환 이유로 인한 탈퇴 51명, 목회 전환 24명, 직업 변경 8명이다. 기타 개인 사유의 세부 요인으로는 일반 개인 사유 38명, 갈등(현직, 동료, 단체) 6명, 사역 계약기간 종료 2명이다. 선교사의 건강 및 질병의 세부 요인으로는 선교사의 건강 33명, 소천 10명이다. 선교지 환경의 세부 요인으로는 비자발적 철수 19명, 비자문제 13명, 순직 또는 순교 6명이다. 소명 및 자질의 세부 요인으로는 선교사역 부적응 4명, 소명 결여 2명, 면직 2명이다. 가족 및 재정 문제의 세부 요인으로는 가족 문제 4명, 후원 부족이 2명이다. 응답한 사역중단 세부 요인을 위의 6개 그룹으로 묶은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 ¹⁵ 2022년에 신규로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는 667명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한 해당 단체의 선교사 총수는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된 선교사 수를 기준으로 한 신규 파송 선교사의 비율은 3.50%이다. 참고로 지난 2021년말 조사에서는 신규 파송 및 허입 비율이 3.17%였다. 참고로 조사대상의 변화, 응답률, 이종소속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규 파송 선교사, 은퇴 선교사, 사역 중단 선교사 수의 변화를 2021년 선교사 수에 적용하였을 때 2022년 전체

대상 국가는 총 71개국으로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 27명, 일본 25명, 서남아 I국 24명, T국 23명, 미국 22명, 태국 21명, 동남아 C국 21명, 동남아 M국 16명, 대만 15명, 동남아 L국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3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기타 또는 미정이 61명이다.

대륙별로 집계된 신규 파송 선교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¹⁶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북미	중남미	남태평양	미정
신규 파송(명)	320	114	78	49	26	17	2	61
비율 (%)	48.0	17.1	11.7	7.3	3.9	2.6	0.3	9.1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에 대한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¹⁷

연령 분포	29 세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비율(%)	3.3	21.7	39.3	24.1	11.2	0.4

- 자비량(텐트메이커, 전문인)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조사를 위해 정의된 자비량 선교사의 개념은 위에서 정의한 장기 선교사 중에서 스스로 생활과 사역의 재정을 조달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하지만, 후원금이 아닌 다른 수입이 일부 있더라도 생활과 사역을 주로 후원금에 의존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 의한 주요 수입원을 모금과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는 16.51%로 집계되었으며, 집계된 비율을 통해 추정하면 3,665명이다.¹⁸

- 국내 본부 선교사

장기 선교사 중에서 국내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는 2.39%로 집계되었다. 이 비율을 반영한 본부 근무 선교사 수는 531명으로 추산된다.¹⁹ 선교사 총수에서 부부는 2명으로 계산했지만,

장기 선교사 수와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¹⁶ 신규 파송 선교사는 수는 667명으로 응답되었지만, 선교사의 국가를 표시한 선교사의 수는 652명이다. 신규 파송 선교사 중 한국 비율은 5.1%(34명)이며, 이는 아시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응답기준 세부권역별로 집계된 숫자는 다음과 같은 순이다: 동남아시아 128명, 중동 78명, 동북아시아(한국 제외, 67명), 미정 61명, 남아시아 52명, 북아프리카 49명, 동남아프리카 47명, 중앙아시아 35명, 한국 34명, 동유럽 27명, 북아메리카 26명, 서유럽 22명, 라틴아메리카 17명, 서중남아프리카 7명, 남태평양 2명, 카리브해 0명이다. 667명 응답에서 세부권역 국가가 아닌 아프리카(11명), 아시아(4명)로 답한 것은 대륙별 신규 파송 도표에 포함시켰다.

¹⁷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로 집계된 수 667명 중 연령 분포가 표기된 511명(76.3%)에 대한 연령별 분포 비율이다.

¹⁸ 응답 기준에서는 3,638명(전체 선교사 수의 94.0%를 포함하는 203단체에서 응답된 수)이 집계되었으며, 자비량 선교사의 비율은 16.51%이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자비량 선교사의 비율은 16.15%였다.

¹⁹ 응답자 기준에서는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는 52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여기에 응답한 해당 단체의 선교사 총수는 전체의 93.25%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된 선교사 수에서 계산한 본부근무 선교사의 비율은 2.39%이다. 지난 조사에서 본부

본부 사무실에 한 명만 근무할 경우 국내 본부 선교사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

- 사역 대상

한국 선교사(장기)의 주요 사역 대상은 해외 현지인 86.3%, 해외 한인(디아스포라) 6.3%,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3.1%, 국내 외국인 2.8%, 기타 1.5%로 집계되었다.²⁰

- 사역 대상 국가

사역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169개국²¹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교사가 사역 대상으로 하는 곳은 미국(1,655명)이며, 그 뒤를 이어 A권역(1,547명), 필리핀(1,328명), 일본(1,250명), 태국(1,006명), 동남아 C국(844명), 동남아 I국(831명), 서남아 I국(654명), 동남아 V국(578명), 동남아 M국(505명) 순으로 추산되었다(이상은 해외 사역 대상국가 상위 10개국이며, 한국은 1,382명이다).²² 이는 실제 거주국 우선이 아닌 사역 대상국을 중심으로 파악된 수이다.²³

이를 대륙별로 묶어서 사역 대상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²⁴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남태평양	기타
선교사(명)	13,188	2,052	1,970	1,931	1,038	1,031	654	340
비율(%)	59.4	9.2	8.9	8.7	4.7	4.6	3.0	1.5

선교사의 비율은 2.55%였다.

²⁰ 선교사의 주요 사역 대상은 204개의 단체가 응답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의 93.97%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 중에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의 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소수 민족 대상 사역자에 대해서는 109개 단체(47.8)%가 응답하였으며, 현지인을 주요 사역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 19,047명 중에서 3.0%인 569명이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한다고 집계되었다. 응답자 수가 많지 않기에 현지인을 위한 사역자 중에서 소수 민족 대상의 보다 구체적인 비율을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²¹ 사역 대상국은 일반적인 국가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홍콩, 마카오, 괌은 특성상 사역 대상국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²² 사역 대상국을 제출한 175개의 단체의 소속 장기 선교사는 전체의 94.3%이다. 위의 각 나라별 사역 대상국에서의 선교사 숫자는 이 비율을 적용하되 이중소속을 고려하여 추산된 것이다.

²³ 사역 대상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대한 응답율이 매우 낮고, 전체 선교사의 2.6%만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는 선교 대상국과 실거주의 차이는 더 많을 것이다. 실거주와 사역 대상국이 5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두 곳이며 다음과 같다. 한국은 사역대상국으로 1,382명이지만, 한국 실거주 선교사는 1,940명(또는 그 이상)이며, 이 숫자는 임시 귀국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또는 다른 국가를 사역 대상으로 하는 장기 선교사의 수이다. A권역을 사역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는 1,547명이지만, A권역 실제 거주는 1,346명(또는 그 이하)으로 추정된다.

²⁴ 세부 권역별로 집계된 비율을 통해 전체 추정 숫자는 다음과 같은 순이다(괄호 안은 작년 조사의 비율이다). 동남아시아 26.6(25.7)%, 동북아시아 16.3(17.0)%, 북아메리카 9.2(9.7)%, 한국 6.2(7.1)%, 남아시아 6.6(6.5)%, 동남아프리카 5.1(5.2)%, 서유럽 4.8(4.6)%, 중동 4.7(4.3)%, 라틴아메리카 4.3(4.1)%, 동유럽 4.1(4.3)%, 중앙아시아 3.7(3.6)%, 남태평양 3.0(3.0)%, 북아프리카 1.8(1.8)%, 서중양아프리카 1.8(1.6)%, 카리브해 0.3(0.4)%, 기타 1.5(1.1)%이다. 기타는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순회, 국내 여러 국적의 외국인 사역이 포함된 것이다. 도표 안의 아시아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역 유형²⁵

한국 장기 선교사의 사역 유형은 교회개척 10,849명, 제자훈련 5,699명, 지도자 양육 2,774명, 현지 지역교회 협력 2,404명, 교육선교 2,013명, 선교동원(미션 플랜팅) 1,936명, 선교교육 1,716명, 어린이/청소년 1,562명, 캠퍼스 선교 1,553명, 기타사역 1,487명, 신학교 1,349명, 복지/개발 1,141명, 문화/스포츠 800명, 의료선교 659명, 비즈니스(BAM) 623명, 순회전도 519명, 본부행정(기관, 연합) 453명, 국내 외국인 근로자 436명, 국내 외국인 유학생 351명, 성경번역 관련 323명, 선교사훈련 312명, 난민(국내외) 310명, 상담/치유/케어 284명, 문서/출판 267명, M.K사역 239명, 국내 다문화 233명, 방송/미디어/IT 228명, 선교연구/정보 관련 140명이다.

3.1.2 단기 선교사

이번 한국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정의된 단기 선교사의 개념은 타문화권에 나가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선교단체의 단기선교사의 자격으로 보증을 받은 선교사를 말한다. 따라서 개교회 소속 단기 선교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기 선교사 수는 위에서 밝힌 장기 선교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준에 의한 단기 선교사는 199단체(87.3%)에서 482명으로 집계되었다.²⁶

3.1.3 국제 선교사(타 국적 선교사)

앞에서 언급된 장기 선교사는 해외선교를 하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만을 말하기 때문에 타 국적 국제(international)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선교현황은 한국 국내 단체가 파송한 국제 선교사를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국제 선교사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에 2020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한국 선교단체 소속의 타 국적 국제 선교사가 있는 단체는 47개 단체이며, 국제 선교사는 83개국의 국적으로 이루어진 910명으로 집계되었다.²⁷

3.2 한국선교단체 현황

단체에 관해서는 초교파(비교단) 선교단체와 교단, 국내(국내 자생)단체와 국제단체로 구분하였고, 한국 선교단체의 주요 기능 분포와 규모에 대해 다루었다.

3.2.1 초교파와 교단

전체 선교단체를 교단과 초교파 선교단체로 나누어 보면, 43개 교단과 185개 초교파 선교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사의 비율은 교단 소속 48.2%와 초교파 단체 소속 51.8%²⁸로 집계되었다.

²⁵ 선교사 사역 유형은 170개의 단체가 응답했으며,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의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81.7%이다. 이 비율을 반영하여 위의 수를 추산했다. 사역 유형은 선택 항목이 많이 있고, 다중 선택이 허용되며, 매년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대략적인 데이터라고 보아야 한다.

²⁶ 응답된 단체 중에서 1명 이상의 단기 선교사가 있는 단체는 26곳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166단체(73.1%)에서 402명으로 집계되었다.

²⁷ 2021년 조사에서는 47개 단체에서 타 국적 국제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74개국 929명으로 집계되었다.

²⁸ 초교파 선교단체 185개 중 27곳은 선교사가 없지만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단체이다.

3.2.2 국내단체와 국제단체

국내단체와 국제단체²⁹로 나누어 보면, 단체 비율은 국내단체는 91.2%(208개), 국제단체는 8.8%(20개)이며, 선교사 비율은 국내단체 소속이 89.1%, 국제단체 소속이 10.9%이다.

3.2.3 단체 유형

선교단체의 주요한 역할을 4가지로 분류하면, 파송단체(sending agency), 봉사단체(service agency), 지원단체(support agency), 전문단체(specialized agency)로 분류해 볼 수 있다.³⁰

한국 선교단체의 주요 역할에 의한 4가지 유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파송단체	전문단체	지원단체	봉사단체	합계
선교단체 수	132	49	34	13	228
단체 비율(%)	57.9	21.5	14.9	5.7	100
선교사 비율(%)	93.1	2.9	1.3	2.7	100

위 도표에 따르면 한국 선교단체는 파송을 주로 하는 단체 57.9%(132개), 전문단체 21.5%(49개), 지원단체 14.9%(34개), 봉사단체 5.7%(13개)로 구성되었다.

3.2.4 단체 규모

한국 선교단체의 규모는 선교사 수, 본부 근무자, 재정 세 가지 측면에서 통계조사를 하였다.

- 선교사 수에 따른 단체 규모(응답기준)³¹

단체규모	단체 수(개)	단체 비율(%)	선교사 수(명)	선교사 비율(%)
50명 미만	155	68.0	2,168	9.2
50-100명 미만	28	12.3	1,930	8.2
100-200명 미만	19	8.3	2,498	10.7
200-500명 미만	17	7.5	6,143	26.2
500-1,000명 미만	4	1.7	2,577	11.0
1,000명 이상	5	2.2	8,127	34.7

²⁹ 국제단체는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내에 지부를 두거나 주요한 영향력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단체는 한국 내에 외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국내 자생 단체를 말한다.

³⁰ 파송단체는 주요 역할이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이며, 봉사단체는 선교사와 연결하여 선교목적의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재정 및 물자를 통해 해외선교를 지원하는 단체 또는 협의회나 연합체 조직을 통해 선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단체로 분류하며, 전문단체는 선교계나 교계에 선교 전문성을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통해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이다.

³¹ 도표 안 선교사 수의 합(23,443명)은 집계된 선교사 수이며, 이중소속을 포함한 선교사 수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대부분(82.6%)은 100명 이상의 회원을 지닌 선교단체에 속해 있다. 나머지 17.4%의 선교사들은 100명 미만의 선교단체에 속해 있다. 대다수 선교단체는 소규모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선교단체의 절반 이상(68.0%)이 회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155개)이며, 선교단체의 80.3%가 회원 선교사 100명 미만이다.

- 선교단체 본부 근무자

한국 선교단체의 근무자(home office staff) 수는 전체 선교사 수의 97.2%가 소속된 214개 단체에서 응답하였고, 풀타임 근무자(full-time staff) 1,516명, 파트타임(part-time staff) 788명, 총합계 2,30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총합계 2,075명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 선교단체 재정 현황

선교단체의 전년도(2021) 모금 결산액(income)과 2022년도 10월까지의 재정 증감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번 재정에 대한 단체 응답률은 61.5%(144개 단체)이다.

144개 단체의 2022년 현황 발표를 위한 전년도 재정 결산 금액의 총합은 2,951억 6천만 원이다.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2021년 말 현황에 발표된 총합 2,620억 3천만 원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이 항목에 응답한 단체의 재정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단체유형별 재정 규모	파송단체		봉사단체		지원단체		전문단체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선교단체 수(개)	136	132	13	13	29	34	49	49
재정 응답 단체 수(개)	84	74	10	8	20	25	34	37
전년 결산(억)	1,796.0	2,006.7	616.6	735.2	135.1	126.1	72.6	83.6
전년 결산 평균(억)	21.4	27.1	61.7	91.9	6.8	5.0	2.1	2.3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결산 평균 금액은 전문단체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파송단체는 조금 늘어났고, 봉사단체는 크게 늘어났다. 지원단체는 결산 수입 평균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022년 한 해의 재정 증감(전년 대비 10월 말까지의 모금 증감)에 대한 응답은 69.3%(158개) 단체가 응답했으며, 응답한 단체 중에서 28.5%(45개)는 재정이 감소, 34.2%(54개)는 변화가 없었고, 37.3%(59개)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3.3 한국 선교사 자녀

선교사 자녀(MK)는 교육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다. 2022년 장기 선교사의 자녀(성인 MK 포함)는 응답기준(168단체)으로 16,95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선교사의 기준으로는 20,077명으로 추정된다.³²

³² 응답한 168단체에 속한 선교사 18,755명의 선교사 가정에 있는 MK는 16,959명으로 선교사에 대한 MK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선교사 자녀의 교육 연령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³³

연령 분포	취학 전 아동	초등 학생 수	중고등 학생 수	대학생 수	대졸 이후
비율(%)	7.9	15.8	18.7	20.7	36.9

4. 추가 조사 항목

다음은 최근 여러가지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몇 가지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4.1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는 귀국하여 2022년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를 말하며, 국내에 정착하여 장기 사역(국내에서의 사역으로 전환)을 시작한 선교사는 제외하였다. 2022년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는 172단체에서 1,230명으로 집계되었다.³⁴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의 귀국 요인은 크게 사역지 환경과 개인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역지 환경의 부득이한 사유(치안, 전염병, 비자 거절, 추방 등)로 임시 입국한 선교사의 비율은 36.9%이며, 기타 개인적인 이유(정기 안식년, 건강, 모금, 방문, 국내 행사 등)의 비율은 63.1%로 나타났다.³⁵

선교지 환경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한 선교사의 비율이 36.9%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선교사의 파송에 해당 국가의 종교정책이나 비자, 치안 등의 사역 환경적인 요소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

4.2 파송 훈련 및 선교 교육

최근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교 관련 교육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아래 파송 훈련과 교육 관련 항목에 대해서 184개 단체(80.7%)가 응답하였다.

90.42%이다. 이 비율을 이종소속을 제외한 선교사 수에 적용하였다.

³³ 2021년 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8.2%, 초등학생이 16.4%, 중고등학생이 18.2%, 대학생이 23%, 대졸 이후 취업연령 및 그 이상은 34.2%였다. 2022년에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대졸 이후 취업연령의 MK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³⁴ 장기 선교사 17,369명(전체의 74.1%)이 속한 172단체에서 귀국 중인 선교사의 수는 1,230명이다. 응답된 수를 바탕으로 본 임시 귀국 비율은 7.08 %이며, 이를 이종소속 선교사를 제외한 전체 선교사 수에 적용하면 2022년 귀국 중인 장기 선교사의 수는 1,572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임시 귀국 비율은 14.42%였다.

³⁵ 위의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선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임시 귀국 요인은 선교사와 주위 환경의 여러 다중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기에 두 가지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4.2.1 선교사 파송 훈련

장단기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과 관련하여, 최근 3년 간의 참가자 수는 다음과 같다. 실행 단체 수는 응답 단체 중 참가자가 1명 이상인 단체의 수를 말한다.

선교사 파송 훈련	참가자 수(명)	실행 단체(개)	증감률(%)
2020년	676	35	
2021년	598	35	-11.54
2022년	698	48	16.72

2022년 파송 훈련 실시 유무를 떠나 선교사 파송 훈련과정이 있는 단체는 60개 단체(자체 실시 훈련과정 53개, 위탁 훈련과정 7개)로 집계되었다.³⁶

4.2.2 선교사 교육

선교사 연장 교육을 포함한 선교사를 위한 파송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참가자 수는 다음과 같다.

선교사 교육	참가자 수(명)	실행 단체(개)	증감률(%)
2020년	774	23	
2021년	511	27	-33.98
2022년	964	29	88.65

선교사를 위한 연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는 30개이며, 2022년 29개 단체에서 선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³⁷

4.2.3 선교 관심자 정기 선교 교육

선교 관심자에 대한 정기적인 선교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참가자 수는 다음 도표와 같다.

선교 관심자 선교 교육	참가자 수(명)	실행 단체(개)	증감률(%)
2020년	1,835	27	
2021년	2,711	29	47.74
2022년	4,757	42	75.47

선교 관심자를 위한 정기 선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는 45개이며, 2022년 42개 단체에서 선교 관심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³⁸

³⁶ 장단기 선교사 파송을 위해 활용되는 훈련과정은 61개(교단 16개, 비교단 45개)로 집계되었다.

³⁷ 장단기 선교사의 연장 교육(또는 재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훈련 프로그램은 38개(단체 자체 프로그램 33개, 외부 프로그램 5개)로 집계되었다.

³⁸ 선교 관심자를 위한 정기 선교 교육프로그램은 55개(선교 단체 자체 프로그램 51개, 외부 프로그램 4개)로 집계되었다.

4.3 단기 선교 활동

한국선교현황 조사에서 단기 선교사 개념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은 단기 선교 활동이라는 범주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4.3.1 기간별 단기 선교 활동

아래의 표는 최근 3년간 단기 선교 활동의 기간별 참가자 수이며, 2022년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은 총 4,109명으로 집계되었다.³⁹

단기 선교 활동 기간	1-3주		4주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참가자수	425	2,562	155	1,516	61	31
실행 단체 수(개)	14	26	9	7	6	5
온라인 참가 비율	78.12% (332명)	35.68% (914명)	54.19% (84명)	37.4% (567명)	21.31% (13명)	32.26% (10명)

2021년부터 단기 선교활동 기간의 항목과 관련 참가자 수를 파악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단기 선교활동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 선교사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지만, 단기 선교사의 증가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활동도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5. 나가는 말

2019년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KWMA와 KRIM이 협약을 맺고, 이제 세 번째로 2022년 현황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들과 비교하면서 자료들의 추이를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롭게 파송되는 선교사 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국내에 임시 귀국하는 선교사의 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선교사 파송 훈련, 그리고 선교 교육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에서 벗어나 점점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교사 연령 분포에서 보았듯이,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는 선교 전반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 문제와 이에 따른 은퇴 선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대책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는데, 선교사 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번 통계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KRIM의 연구원들과 선교현황 설문 설계 단계에서 함께 논의한 KWMA 사역자, 그리고 통계에 응한 선교단체 실무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³⁹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에 대해서 182개 단체(79.8%)에서 응답하였으며, 선교 단체가 아닌 개교회의 단기 선교활동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